

모잠비크, 초대형 가스전 연이어 발견

1. 모잠비크의 가스 생산·개발 현황

□ 기존 가스 생산·개발 현황

- 중동부 내륙의 모잠비크 분지(Mozambique Basin)에서 약 2만 톤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7%를 남아공에 수출하고 있음.
 - 주 개발광구는 2.35Tcf¹⁾ 규모의 판데(Pande)와 1.06Tcf 규모의 테마네(Temane)로, 최근에는 인하쏘로(Inhassoro), 부지(Buzi), 니지카(Nijika) 등지에서도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음.

□ 신규 가스 개발 현황

- 북서부 해양지역인 로부마 분지(Rovuma Basin)의 제1, 4광구에서 대규모 가스전(추정매장량 100Tcf²⁾)이 확인되었으며, 북서부 내륙의 카루분지(Karoo Basin)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.
 - 제1광구는 2011년 5월 골핀호 지역에서, 2012년 1월 아탐 지역에서 각각 가스층이 발견되었는데 매장량은 30Tcf~60Tcf로 추정됨.
 - * 개발 컨소시엄 지분 구조: 미국 아나다코(Anadarko) 36.5%, 일본 미쓰이(Mitsui) 20%, 모잠비크 국영에너지회사(ENH) 15%, 인도의 BPRL Ventures 10%, 비데콘(Videocon) 10%, 영국 코브에너지(Cove Energy) 8.5%

1) 1 Tcf(Trillion cubic feet)는 1조 ft³로, LNG로 환산하면 약 2,400만 톤임.

2) 가스의 전세계 확인매장량은 2010년 말 기준 총 6,600Tcf로 러시아, 카타르, 이란 3개국에 이 중 50%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.



<그림 1> 모잠비크 가스전



자료: 한국가스공사.

- 제4광구는 2011년 10월 최초 탐사정(Mamba South-1)에서 가스층(추정매장량 15Tcf 이상)이 발견된 이후 2012년에 7.5Tcf 규모의 북맘바-1(Mamba North-1), 10Tcf 규모의 동북맘바-1(Mamba North East-1), 7Tcf~10Tcf 규모의 코랄-1(Coral-1)에서 연이어 대형 가스층이 발견되었음.

* 개발 컨소시엄 지분 구조: 이탈리아 Eni 70%, 한국가스공사 10%, 포르투갈 갈프 에네르지아(Galp Energia) 10%, 모잠비크 ENH 10%

2. 가스전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

□ 동부 아프리카 지역이 신규 자원개발지로 주목

- 2000년대에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, 적도기니, 앙골라 등 서부 지역이 가스 생산 중심지로 급성장하였는데, 최근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해양에서 대형 가스층이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동부 지역에도 개발 붐이 일 것으로 기대됨.
- 원유의 매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관련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.



□ 외국인투자 유입과 연관사업 발전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전망

- 모잠비크는 풍부한 가스매장량을 바탕으로 10년 내에 연 2천만~3천만 톤의 LNG를 생산할 계획임. 또한 비료, 천연가스액화(Gas-to-Liquid),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.
 - 모잠비크 총 인구의 70%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, 비료 제조 플랜트 건설을 통해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음.
- IMF는 모잠비크가 2011~16년 중에 평균 9.2%의 높은 경제성장률(아프리카 평균 5.9%, 세계 평균 4.3%)을 달성하여 1인당 GDP가 582달러에서 898달러 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□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LNG 수입원을 확보하고 신규 시장 개척 가능

- 동 지역의 가스개발로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3.1~3.4년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, 2013년 1월까지 추가로 3개의 탐사정을 시추할 예정 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음.
- 아울러 모잠비크의 LNG 사업과 관련한 플랜트 및 배관 건설, 수송 등 연관분야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여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【유 나 영】